

윤리뿌시기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2021 생윤뿌시기

제시문과 선지 체크로 훑아보는
마지막 윤리 개념
볼륨 1에서 4까지

윤리충 지음

2021 생활과 윤리 복시기

윤리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선지의 중요도를 매기고, 선지를 익숙한 문제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통 연계교재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정답 선지 때문에 아까운 매력적 오답 선지들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 복시기는 그렇게 놓치게 되는 제시문이나 개념을 선지로 풀어 모든 심화 개념을 머리에 각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학습하였던 선지와 제시문을 낯설게 함으로써 자신있던 부분을 수능 전 '마지막으로' 틀려보고, 다시는 틀리지 않게 학습하는 것, 검증받은 독학용 교재인 윤리 복시기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전체적 구성

-고난도 선지 복시기: 각 볼륨별로 연계교재, 기출, 자작 변형 문제의 ox 선지를 담아보았습니다. 납득이 안가시는 부분은 해당 시즌의 인용자료를 직접 구해 병행하며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선지 복시기 빠른 정답: 해설 보기 전 일단은 정오만 체크하고 충분히 고민해보라는 의미에서 답지와 해설을 분리했습니다.

-고난도 선지 복시기 해설: 교과과정 내의 내용과 더불어 교과 외의 흥미로운 내용도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윤리 복시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익혀야 할 부분입니다.

-고난도 제시문 복시기: 제시문을 그대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충분히 독해하시길 바랍니다. 한 지문 안에 색깔이 다른 부분은 이항대립이거나 분류이니 유념하시면서 심화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건 몰라도 제시문 복시기 만큼은 반드시 컬러로 인쇄하여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흑백으로 뽑을 경우 글자가 잘 보이지 않고 서로 다른 색 사이의 구별이 힘듭니다.

볼륨별 특징

vol1- 연계편입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선지들을 종합하였습니다.

vol2- 기출 편입니다. 금년 기출을 제외한 역대 기출 선지 중 엄선하여 골랐습니다.

vol3- 올해의 트렌드 편입니다. 올해의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의 선지를 통해 올해의 출제 경향을 학습합니다.

vol4- 파이널 자작 변형편. 제시문과 낱개의 개념을 선지로 만들고, 이전 볼륨에 나온 쉬운 선지를 더 어렵게 변형하였습니다.

학습방향은?

- 풀면서 다시 볼 가치가 있는 선지와 헷갈리는 선지에 1차로 밑줄 친 후 해설과 비교. 며칠 후 다시보며 또 틀리거나 납득 실패시 별표. 그 후 또 반복될 시 형광펜으로 칠한 후 관련 개념을 심화 학습하여 수능 쉬는 시간에 훑은 후 만점 받기!
- 선지 복시기 말고도 제시문 복시기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선지 변형보다 제시문 변형이 더 컬러로 나옵니다.
- 문제는 5개씩 풀고 정답 확인 후 해설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종 문의사항 및 질문은 카카오톡 아이디 sinsin5614 또는 이메일 sinsin5614@naver.com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도 선지 뿌시기

기타 응용윤리

1. 칸트는 도덕법칙과 자연법칙은 인간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2. 이론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2021수특] ()
3.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의 가치 중립적 서술을 목적으로 한다 [2021수특] ()
4. 메타윤리학과 달리 기술윤리학은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5. 응용윤리학은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인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21수특] ()

6.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수양한 이후에 타인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7. 공자는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 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8. 아퀴나스는 자기 보존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았다 [2021수특] ()
9. 칸트는 도덕 법칙이 사회적 관습과 양립 가능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0. 매킨타이어는 도덕 판단 과정에서 선한 동기와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1. 맹자는 노자와 달리 군주는 아버지처럼 덕으로써 백성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2. 노자는 맹자에 비해 인의예지의 덕목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하는 정도가 높다 [2021수특] ()
13. 불교는 삶의 모든 현상이 허무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4. 불교는 동물과 달리 모든 인간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엄한 존재라고 본다 [2021수특] ()
15. 벤담과 밀은 모두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16. 매킨타이어는 칸트와 달리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17. 칸트는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18. 아퀴나스는 오직 신만이 도덕원리의 참, 거짓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9. 유교에서는 개인은 모체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2021수특] ()
20. 장자는 삶과 죽음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1. 장자는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22. 불교에서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3. 불교에서는 죽음은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일 수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4. 불교에서는 인간은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5. 불교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도덕적 실천은 사후 세계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6. 플라톤은 에피쿠로스와 달리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7. 플라톤과 불교 모두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8. 공자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9. 아퀴나스는 자살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따르는 행위라고 보았다 [2021수특] ()
30. 아퀴나스는 자살은 신의 선물인 생명을 다시 신에게 위임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2021수특] ()

31. 아퀴나스와 칸트는 자살은 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았다 [2021수특] ()
32. 에피쿠로스는 하이데거, 플라톤과 다르게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33. 데카르트는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34. 싱어는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2021수특] ()
35. 싱어는 인간은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고난도 선지 뿌시기 빠른 정답

기타 응용윤리

XXOXX XOXOO XXXXO
XOXXX OXXOO XOXXX
XXXXX

사회윤리/평화윤리

OXOOO XOXOX OOOXO
OOOOX XXXXX XOOOX
XOXOO XOXOX OXXOX
XXOXX XOXOX XOOXO
XOX

고난도 제시문 뿌시기

한 나라의 부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그 나라의 정치 문화이지 자원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원조의 의무를 지닌다.

-롤스

인간은 다른 자연적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자기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결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 보존 목적 이외에 다른 생명체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 다른 생명체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사실이며, 이에 대한 다른 생명체의 동의에 관계없이 인간 자신의 고유한 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요나스

테일러는 인간의 활동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절차적 규칙들을 우선성의 원리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자기방어의 원리, 비례(균형)의 원리, 최소악의 원리, 분배적 정의의 원리, 그리고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이다. 자기 방어의 원리란 도덕적 행위자에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유기체들에 대항해 도덕적 행위자가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비례(균형)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명품 소비를 위한 동물 가축)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생존)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한다는 원리이다. 최소악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이지만 문명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온 것들과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열린 자세로 동식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분배적 정의의 원리란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불가피하게 동식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원리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란 최소악의 원리와 분배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비인간인 유기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리이다.

-테일러

절대 빈곤은 나쁘다. 어떤 절대 빈곤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 방지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절대 빈곤을 막아야만 한다.

-싱어

선의 최대화를 기하는 데는 복잡한 선택들이 따른다. 어떤 자선 단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동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어떤 구호 활동에 투입해야 한정된 자원으로 선의 최대화에 유리한지도 중요하다. 선행에도 기회비용이 있다. 더 많은 선을 행할 기회의 상실은 반복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예컨대, 부자 나라의 빈곤과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차원이 다르다. 부자나라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부유한 대다수 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빈민은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를 해결할 형편조차 되지 않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부자 나라의 빈민보다 가난한 나라의 빈민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훨씬 '투자 가치'가 높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은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원조에 동참해야 한다.

-싱어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등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롤스

고난도 선지 뿌시기 해설

1. 싱어는 원조에 있어 친소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나딩스는 배려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원조에 있어서도 친소를 고려한다. 따라서 싱어가 나딩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다.
2. 싱어는 원조의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원조를 하는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다.
3. 테일러는 불간섭의 의무를 주장하며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무는 생태계 그 자체에 선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인 생명 공동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테일러가 생태계를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본 점은 레오폴드와 비교하기 좋다. 테일러와 달리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을 위해 생태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4.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합법적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시민 불복종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도덕적이라고 본 점은 맞다.
5. 갈통은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번지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적·구조적·직접적 폭력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6. 하버마스는 준칙이 보편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부족하고 담론을 통해 그 결과와 부작용이 모두의 합의를 받을 수 있는 규범일 때 정당하다고 보았다.
7.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복지 수준 향상이라고 보지 않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에 있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동의할 선지이다.
8. 목자는 음악이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음악은 성왕의 일과도 맞지 않고 백성의 이로움과도 맞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연계교재에서 ‘군주가 악기를 만들어서 백성이 다 같이 즐긴다면 화합을 도모할 수 있지만, 지금 재물은 축내고 백성은 지치고 쇠약해져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는 이가 없으니 커다란 중을 만드는 일이 화합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특 147p) 라고 표현된 점이다. 즉 음악이 화합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해가 더 크다는 말이다. 선지가 틀린 이유는 백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도 아니고 개념의 깊이가 깊어야 할 부분도 아니니 만약 수능에 나온다면 그냥 제시문 보고 푸는 게 좋다.
9.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때 다수의 정의관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에 불복종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정당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틀린 선지이다. 아마 이 문제를 틀렸다면 선지를 잘못 봐서 선지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줄 알고 롤스 부정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0.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며,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싱어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반대했지만, 만약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11. 레건과 싱어는 모두 모든 생명체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다. 반면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으며 인간이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12.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결정하는 가상의 사고실험으로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을 제시하며, 원초적 상황의 개인들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분배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모두가 가상상황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선지를 잘 보면 결국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내 개인 간의 문제를 묻고 있다. 개인 간의 갈등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다.
14. 칸트는 동물에게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틀린 선지다. 칸트가 동물에게 갖는 의무는 궁극적으로 보면 동물 그 자체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볼 수 있다.
15. 롤스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분배 원칙과 같은 말이다. 각자는 원초적 상황에서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최악의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기 때문이다.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은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 맞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 부정의가 없었다면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은 선량한 사람도 불의의 하수인으로 만든다고 보며, 법보다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